

도감출판의 적장자 '교학사'

〈한국의 자연〉 시리즈 등으로 도감출판의 새 지평 열어

교학사는 1988년 처음으로 도감을 펴낸 이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21종의 도감을 출간했다. 첫 출간한 《한국야생화도감》은 김태정이라는 '스타'를 만들어냈으며, 1996년 펴낸 《한국식물도감》은 식물도감의 '완성판'이란 평가를 받았다. 교학사가 도감 출판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자료만 있으면 언제든 출간한다'는 신념과, 든든한 재정적 후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교학사의 도감 출판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어느 날 서울 마포에 있는 교학사 교재부 사무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가 내민 것은 야생화를 찍은 한 묶음의 슬라이드 필름. 필름을 받아든 유흥희 부장(66)은 여러 날을 고민했다. 저자가 워낙 무명이었던 까닭이다. 학계에 발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좋으련만, 필름을 맡기고 간 사람은 취미삼아 야생화 사진을 찍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필름을 살펴본 유부장은 마음을 돌렸다. 필름이 맘에 들어 놓치지 싫었던 그는 결국 도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식물도감 출판의 새 장 열어

유부장과 직원 한명이 6개월 동안 철야하는 '난산' 끝에 탄생한 도감이 바로 《한국야생화도감》이다. 필름을 들고 온 이는 다름 아닌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김소장은 지금이야 야생화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학계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무명이었다. 1988년 출간된 이 도감은 김소장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야생화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교학사가 자연도감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개척하는 신호탄이 됐다. 이후 지금까지 교학사는 모두 21권의 도감을 펴냈다.

《한국야생화도감》의 성공을 발판 삼아 교학사는 도감 출판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다. 김소장의 도감을 접한 서울산업대 박완희 교수가 버섯도감을 내달라고 필름과 원고를 가져 왔고, 유부장은 내친 김에 한국의 자연을 테마로 해 도감을 시리즈로 펴내기로 작정한다. 1991년 《한국의 버섯》을 시작으로 출간된 《한국의 자연》 시리즈는 《한국의 곤충》(남상호), 《한국의 새》(윤무부) 등 지금까지 모두 16권이 발간됐다.

이 시리즈의 우수성은 여러 출판상을 수상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난초》와 《한국의 독버섯·독식물》(배기환 외), 《한국의 나비》(주흥재 외)는 <제38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한국의 수목》(김태욱)은 <제35회 한국출판문화상>과 <1995년도 최우수 저술

상>을 받았다.

교학사가 자랑하는 도감은 1996년 펴낸 《한국식물도감》(이영노)이다. 이 도감은 국내 최초의 초대형 원색 식물도감으로, 한반도에 자생하는 현화식물과 귀화식물, 그리고 원예식물을 포함한 총 168과 3,700여 종의 식물을 수록했다. 이 도감을 펴내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런 도감을 만들 수 있느냐"는 말까지 들었다. 이전까지 출간된 식물도감은 그림이나 흑백사진을 위주로 일부만 컬러사진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도감은 기존의 식물도감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냈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진 분해 기술과 인쇄 기술이 원색도감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주위에서는 5천부나 나가겠냐고 우려했지만, 출간하자마자 중쇄를 찍었다. 18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성공이다."

사진 자료 수집에만 오랜 시간 소요돼

도감을 만드는 데 가장 어려운 일은 적합한 저자를 물색하는 것이다. 도감을 만들 만한 사진을 확보한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충하초》(성재모)는 신문에 난 조그만 기사를 보고

저자를 찾아낸 경우다.

저자를 찾았다고 도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진을 수집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곤충》(남상호)은 만드는 기간만 4년이 걸렸다. 《한국본초도감》(안덕균)을 만들 때는 필요한 사진이 없어, 지은이와 함께 속리산과 지리산을 헤매기도 했다. 이 도감은 한의사와 한의학과 학생들 그리고 약대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유부장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그림을 곁들여 출간된 것은 있지만 컬러 사진을 수록해 펴낸 것은 교학사판뿐이다"고 강조한다.

유부장은, 이처럼 교학사가 도감을 꾸준히 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좋은 자료만 있으면 언제든 출간한다는 신념과 교학사라는 탄탄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권의 도감에 들어가는 컬러사진만 해도 800~1000장에 이르는데, 이 사진들을 분해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 교학사의 자체 장비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학사는 앞으로 어린이용 도감을 펴낼 계획이다. 《한국의 바닷물고기》 《한국의 귀화식물》 《한국의 동굴》도 곧 《한국의 자연》 시리즈에 추가될 목록이다. - 최갑수 기자

